

T. S. Eliot의 靜止點

—Four Quartets 論—

李 泰 柱*

I

詩人の 궁극적인 目的이 自我의 表現이라고 생각할 때, 그 表現의 方法은 人生과 世界를 보는 그 詩人の 독자적인 視點에 그 根據를 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詩인이 人生과 世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존(Vision)으로도 규명되어진다.

詩人 엘리엇(T. S. Eliot)의 모든 詩作品은 世界와 自我의 關係, 即 世界속에서의 自我의 經驗을 그 核心主題로 삼고 있는 바, 그 主題의 展開方法으로서 告白——經驗의 告白——을 주로 使用하고 있는데, 이 告白은 그 經驗속에 內包된 世界의 表現이 되며, 그 表現된 世界의 觀察은 그 觀察속에 內包된 觀察者의 숨은 自我의 表現이 되어진다.

엘리엇의 初期詩에서, 우리는 人間狀況의 象徴的 表現을 본다. 그 象徴的 表現은 극심한 苦惱와 絶望의 根源에서 움튼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世界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몸부림치는 現代人の 空虛요, 恐怖다. 初期詩의 世界는 「어떤 意味에서, 詩인이 詩를 쓴다기 보담은 世界가 詩를 쓰는」^① 그런 境地였다. 따라서 初期詩의 世界속에서 우리가 發見하는 것은 「現代人の 特質」이며, 그 特質이 「現代人の 타락」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엘리엇은 그의 初期詩作의 努力속에서, 「무너져 나리는 世界」의 批評的 觀察과 그 象徴的 表現에 餘念이 없다. 1925年 以後의 그의 詩作品, 特히 「聖灰水曜日」(Ash-Wednesday)에 이르러, 그는 世界속에서의 自我의 問題에 關心을 集中시킨다. 위선 自我와 世界와의 關係——即 「自我주

* 文理科大學(서울) 英語英文學科 助教授

註 ① George Wright, The Poet in the Poem—The Presence of Eliot, Yeats, and Poun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 p. 64.

변에 있는 세계가自我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同時에, 세계가自我속으로 充分히 스며드는」^② 相互關係가 詩속에서 表現되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를 발판으로 하여, 詩의 主題는 人間의 타락의 樣相으로부터, 人間의 救濟의 可能性으로 옮겨간다. 「現代人の 特質」의 發見과 觀察에서 부터 「永遠한 人間의 特質」^③의 모색으로 그 視點이 變한다.

「회의주의자로 부터 宗教的인 신앙가로의 엘리엇의 轉身」^④이 問題되는 것이 바로 이런 角度에서다.

詩를 통해서 빛을 보여 주려는 初期詩의 立場에서 부터, 詩를 통해서 어떤 「存在」로 탄생하고 싶은 強烈한 自我의 希願을 나는 엘리엇의 後期詩속에서 본다.

詩속에 숨은 엘리엇의 自我가 빛이며, 그 自我는 어떤 독특한 表現方法을 發見했으며, 그 自我가 到達한 人生의 마지막 비존이 빛인가를 엘리엇의 「네개의 四重奏曲」(Four Quartets)속에서 밝혀보자는 것이 이 論文의 目的이다. 나는 詩人 엘리엇이 不斷히 움직이는 詩人이라는 見解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냥 變化를 겪고 있는 詩人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變化는 앞으로 向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 過去와 現在와 未來의 世界를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네개의 四重奏曲」에서 내가 發見한 特異點은 이런 데 있다. 이 詩속에서, 엘리엇이 마지막으로 태어나고 싶은 궁극적인 영원한 自我의 모습이 未來志向的인 前進의 자세속에서 나타나 있긴 하지만, 過去의 世界에 對한 追憶을 告白한다는 이 詩의 方法은 지극히 過去志向的인 자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人間은 現在의 時點에서 탄생되고 살아간다. 現在는 過去와 未來속에 있으며, 영원한 時間도 따라서 過去, 現在, 未來속에 있다는 그의 時間論은, 「버언트·노튼」의 에피그라프로 引用된 「위로 向하는 길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나, 同一한 것이다.」라고 하는 헤라클리투스(Heraclitus)의 말과 함께 作品解明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나에게 相當한 暗示를 던져주고 있다. 結局, 엘리엇의 變身은 빛이나 하는 것이다. 「宗教的인 신앙」의 世界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빛을 본 엘리엇의 未來속의 現在의 自我는 過去속에 이미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의 움직임은 과거로 向하는 움직임도 아니요, 未來로 向하는 움직임도 아닌, 영원히 現在속에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고, 靜止한 듯 움직이는 運動속의 「靜止點」(the still point)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같은 時間과 哲學과 神學的 靜止點은 주변에 돌아가는 歷史의 바퀴가 있어야 成立될 수 있다고 볼 때, 그 돌아가는 바퀴는 「變轉하는 世界」(the turning world)가 된다. 初期詩에서 이미 보아 온 「變轉하는 世界」의 樣相이 다시 集約된 형태로 메아리치고, 「聖灰水曜日」의 그 「宗教的인 구원」의 「存在」가 눈부신 빛이 되어 환히 다시 비치는 「네개의

註 ② Ibid., p. 64.

③ Ibid., p. 62.

④ Elizabeth Schneider, "Prufrock and After: The Theme of Change," in PMLA, Volume 87, Number 5, October 1972, p. 1103.

四重奏曲」은 이 作品이 엘리엇의 마지막 詩作品이라는 그 終結性과 함께, 엘리엇의 詩世界의 綜合 集大成이라는 見解를 버릴 수 없다. 「네개의 四重奏曲」을 解明하는 方法論의 定立을 위한 暗示는 이런데서 왔다. 서로 相反되는 異質物이 서로 부딪치고, 和合하는 그 雄大한 調和는 詩의 構造形式面에서도 충분히 評價해야 될 업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變轉하는 自我가 到達한 마지막 內面의 秩序가 外面에 投影된 結果였다.

II

1927年の 年度가 붙은 엘리엇의 評論 “Shakespeare and the Stoicism of Seneca”에서 “모든 詩人의 出發點은 자기 自身の 정서다.”라고 엘리엇은 表明하고 있다. 그의 詩作品『聖灰水曜日』(Ash Wednesday)이 刊行된 것은 1930年이지만, 이 중에 Part II는 이미『人事』(Salutation)라는 제목으로 1927년에 發表되었다. 에리자베스 슈나이더도 그의 이같은 言明은 初期의 엘리엇의 詩論의 核心인 「個性의 消滅」(the extinction of personality)과 정반대 되는 개념이라고 結論짓고 있는데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同感이다. 엘리엇의 全詩作品을 檢討해 보면 그는 詩의 마스크속에서 一貫性있게 發展하고 成長하는 가운데 變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詩人 W. B. Yeats가 세월과 더불어 變모해 가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事實이지만, 엘리엇의 경우, 그 미묘한 自我의 變모는 詩의 客觀化 속에 깊이 숨어있는 것이어서 쉽사리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變모가 슈나이더의 말대로 “change in the individual soul”^⑤에 關係되는 일이어서 그 樣相의 解明은 더욱 더 복잡하고 난해하다. 나는 그의 「네개의 四重奏曲」을 解明하는 가운데, 될수록 그 變化를 그의 全詩作品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리를 追求해 감으로써 밝혀 볼까한다. 빛이 變形되고, 빛이 發展되고, 빛이 完成되었는가 하는 點이다. 하나 하나의 詩作品은 結局 斷片에 지나지 않지만, 그 斷片은 詩人 엘리엇 自身の 分身이란 점에서 意味있는 구성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詩의 斷片들을 有機的인 全體로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엘리엇의 詩가 하나의 뚜렷한 方向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方向으로 향해 旅路^⑥를 더듬는 旅客의 이미지가 이 詩人속에 명백히 들어나 있다는 것은 이런 點에서 수궁이 간다.

피터·밀워드의 지적대로^⑦ 出發點에 선 詩人 엘리엇은 「絶望의 詩人」^⑧이었다. 그 절망은

註 ⑤ Ibid., p. 1117.

⑥ Peter Milward, “In Memoriam: The Theme of Death in Eliot’s Poetry,” T.S. Eliot: A Tribute from Japan. Edited by Masao Hirai & E.W.F. Tomlin, The Kenkyusha Press, Tokyo, Japan, 1966. p. 183.

“The poetic development of Eliot is presented in his poems under the image of a journey...”

⑦ Ibid., p. 183. “His whole endeavour; both as man and as poet, was to dissociate himself from this decadent world and to seek the spring of new life and inspiration in the riches of European tradition and in the simplicity of the Christian religion.”

⑧ Ibid., p. 183.

타락한 時代와 世界를 直視할 때 생겼다. 그것은 變轉하는 世界(turning world)^⑨의 樣相이다. 이 타락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그는 구라파文化의 傳統속에 發見되는 詩에서 찾았고, 藝術은 그 詩에 도달하기 위한 方便으로서 意味를 갖는다고 그는 생각했으며, 時代의 타락에서 구원되는 길은 오로지 기독교적인 宗教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믿었다. 卽 變轉하는 世界의 혼란된 現實에 詩를 주는 詩의 作業으로서 「藝術적인 靜止상태」(artistic stillness)에 도달될 수 있다면, 그 藝術적인 靜止상태는 「宗教의 靜止상태」(divine stillness)^⑩로 向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詩的 信念이다.

精神的인 죽음과 暗黑은 變轉하는 世界를 길게 휩싸고 있는 안개다.

Helen Gardner 는 「네개의 四重奏曲」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⑪

“These poems do not begin from an intellectual position, or a truth. They begin with a place, a point in time, and the meaning or the truth is discovered in the process of writing and in the process of reading.”

「한 場所」와 「한 時點」으로 시작되는 이 詩作品의 意味는 「읽는 과정」속에서 發見되어진다고 했는데, 그 읽는 方法이 「네개의 四重奏曲」만을 읽고서는 도저히 「네개의 四重奏曲」은 解明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精神的인 죽음과 暗黑이 드리워진 場所와 時間을 그의 初期作品속에서 위선 파악해야 한다.

1917년의 詩集 “Prufrock and Other Observations” 속의 詩作品인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에 있어서 그 場所는

The yellow fog that rubs its back upon the window-panes,
The yellow smoke that rubs its muzzle on the window-panes
Licked its tongue into the corners of the evening,
Lingered upon the pools that stand in drains,
Let fall upon its back the soot that falls from chimneys,
Slipped by the terrace, made a sudden leap,
And seeing that it was a soft October night,
Curled once about the house, and fell asleep.

같은 場所다. 창문을 가운데 끼고, 서로 아무런 意識의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은 斷絶의 場所다. 프루후록이 뵈었다고 말하던 상대편은 “That is not what I meant at all./That is not it,

註 ⑨ Burnt Norton II.

⑩ J. Hills Miller. “T.S. Eliot,” Poets of Reality.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65. p. 143.

⑪ Helen Gardner. The Art of T.S. Eliot.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1949, p. 57.

at all”^㉑이라고 답한다. 그리하여 서로가 相通하지 못하는 두 人間은 “노오란 안개”처럼 그들의 欲求不滿을 등으로, 코끝으로, 혀바닥으로 달래다 깊은 忘却으로 잠들 수 밖에 없다. 그곳은 과감한 行動이 없는 場所다. 茶한잔 드는데에도 수백번 망서려야 하는 우유부단의 場所인 것이다.

“for a hundred indecisions,/And for a hundred visions and revisions,/Before the taking of a toast and tea”^㉒

죽음에서 부활한 Lazarus처럼 모든 것을 터놓고 싶지만 下水口에 고이는 웅맹이처럼 밖으로 흐르지 못하고 집주변을 뱅그르 돌고 제자리에 꺼져버려는 敗北의 場所다. 수술대위에 누운 無力한 患者의 場所(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이며, 반쯤 텅빈 거리(half-deserted streets)에다 더러운 食堂과 싸구려 호텔이 즐비한(one-night cheap hotels/And sawdust restaurants with oyster-shells:)場所다. 그리고 偉大하고 장엄한 것이 말로 지껄여지기는 하지만 偉大하고 장엄한 行動은 결여되고 있는 場所이다. (In the room the women come and go/Talking Michelangelo)^㉓

이 場所속에서의 時間도 無意味하다. 客觀化되는 行動의 時間^㉔이 아니기 때문에, Prufrock는 追憶으로서의 過去와 豫想으로서의 未來만을 갖고 있을 뿐 歷史속에서의 現在를 갖고 있지 않다.

永遠한 現在로서의 Michelangelo의 迫力은 Prufrock 속에 찾아 볼 수 없고, 있는 것은 無意味한 反覆속에서 마비되어가는 肉體의 쇠퇴뿐이다. (I grow old... I grow old...)^㉕ 따라서 그 時間은 각성의 아침도 아니요, 투쟁의 한낮도 아닌 망각과 無爲의 時間인 午後요 저녁인 것이다. (And the afternoon, the evening, sleeps so peacefully!/Smoothed by long fingers,/Asleep... tired... or it malingers,/Stretched on the floor, here beside you and me.)^㉖ 그 時間은 허위의 時間이며, 非創造的인 時間일 뿐이다.

There will be time, there will be time
To prepare a face to meet the faces that you meet;
There will be time to murder and create,
And time for all the works and days of hands
That lift and drop a question on your plate;^㉗

註 ㉑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㉒ Ibid.

㉓ 광호숙의 引用文은 모두 The Love Song of J.A.P.에서.

㉔ J. Hills Miller, Ibid., “But time, like space, has only a subjective existence for Prufrock.” p. 139.

㉕ The Love Song of J.A.P.

㉖ Ibid.

㉗ Ibid.

感覺에 依해서 파악 되었지만 意志에 依해서 客觀化되지 못한 그 時間은 곧 절망과 죽음의 時間이다.

For I have known them all already, known them all
Have known the evenings, mornings, afternoons,
I have measured out my life with coffee spoons;
I know the voices dying with a dying fall
Beneath the music from a farther room.
So how should I presume?¹⁹

엘리엇의 初期詩의 世界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런 場所와 時間은 J. Hills Miller의 말대로 “God exists in these poems, but he is unavailable”²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詩人의 出發이 되어지고, 方向이 된다. 「네개의 四重奏曲」이 詩人 엘리엇의 詩的 탐색의 종결이라고 한다면 그 始作은 바로 이런데서 찾아야 한다.

III

엘리엇의 時間과 場所는 初期詩의 단계속에서는 여전히 暗黑속에 있었다. (we are really in the dark)²¹ 그 暗黑속에서 그는 發狂하듯 모든 無意味와 絶望을 노래한다.

And I must borrow every changing shape
To find expression... dance, dance
Like a dancing bear,
Cry like a parrot, chatter like an ape.²²

그러나 그 場所와 時間은

The burut-out ends of smoky days²³

이며

The morning comes to consciousness
Of faint stale smells of beer
From the sawdust-trampled street
With all its muddy feet that press
To early coffee-stands.

註 19 Ibid.

20 J. Hills Miller, Ibid., p. 141.

21 Portrait of a Lady.

22 Ibid.

23 Preludes.

With the other masquerades
 That time resumes,
 One think of all the hands
 That are rasing dingy shades
 In a thousand furnished rooms.④

맥주냄새가 풍기고, 톱밥이 깔린 타락의 거리이고, 그곳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人間
 群들이다. 詩 Preludes 속에 나오는

“winter, smell of steaks in passageways, smoky days, gusty shower, the grimy scraps,
 withered leaves, vacant lots, broken blinds, A lonely cab-horse, faint stale smells of beer,
 sawdust-trampled street, muddy feet, early coffee-stands, masquerades, dingy shades,
 the thousand sordid images, the sparrows in the gutters, the yellow soles of feet, the
 soiled hands” 등의 言語는 모두 불결하고 처량하고 空虛한 것을 뜻하고 있다. 엘리엇이
 포착한 現實은 이 같은 言語의 風景이다. 이같은 暗黑의 場所와 時間속에서 無限히 苦痛스런
 現實의 告發을 그는 試圖하고 있다.

“Prufrock”의 世界나 “Preludes”의 世界는 똑같이 不完全하고 파멸된 世界이다.

“Prufrock”가 한 個人의 파멸이라면, “Preludes”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都市의 파멸이
 라 볼 수 있고, “Gerontion”(1920)과 “The Waste Land”(1922)에 이르면, 구라파와 한 時代와
 그리고 歷史는 “런던다리가 무너지듯”⑤ 붕괴한다. 過去와 現在의 同時性을 살리는 The Waste
 Land의 詩方法은 곧 人間의 時間과 場所의 붕괴에 대한 根源的인 물음의 提示이고, 그 파멸
 이 未來에까지 擴大되어지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主題意識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Gerontion”과 “The Waste Land”의 時間은 기다리는 時間이요, 場所는 매마른 곳이다.

Here I am, an old man in a dry month,
 Being read to by a boy, waiting for rain.⑥

Here is no water but only rock
 Rock and no water and the sandy road
 The road winding above among the mountains
 Which are mountains of rock without water
 If there were water we should stop and drink
 Amongst the rock one cannot stop or think

註 ④ Ibid.

⑤ The Waste Land.

⑥ Gerontion.

Sweat is dry and feet are in the sand

If there were only water amongst the rock^㉞

“Gerontion”의 時間과 場所를 具體的으로 살펴보자. dry month, salt marsh, a decayed house, some estaminet of Antwerp, the peevish gutter, windy spaces, in the dark room, a draughty house, many cunning passages, contrived corridors and issues, the juvencence of the year, depraved May, the new year, a rented house, a sleepy corner, a dry season.^㉟

석은 집, 안뜨워프의 빠, 어두운 방, 많은 엉큼한 通路, 그리고 졸리는 모퉁이 등으로 表現되는 이곳은 “Purrock”와 “Preludes”의 場所와 그 不毛性和 暗黑相으로 해서 別다른 것은 없지만, 다만 “매마른 季節”의 황량한 절망의 時間으로부터 回春의 時間으로 뛰어들어 보고자 하는 회미한 期待가 엿보인다.

Signs are taken for wonders. ‘We would see a sign!’.

The word within a word, unable to speak a word,

Swaddled with darkness. In the juvencence of the year

Came Christ the tiger,^㊱

그리스도의 강림은 새로운 希望이다. 그러나 엘리엇에 있어서 生命의 탄생은 언제나 죽음을 前提로 하는 것이었다.^㊲ “Gerontion”과 같은 時期에 屬하는 “The Waste Land”는 現代로 상징되는 망각과 죽음의 겨울이 오히려 달갑고, 소생하는 부활의 봄을 괴로와 하는데, 그 理由는 죽은 땅에서 새 生命이 움터 올 可能性이 전혀 없는 現代文明의 不毛性 때문이다. 現代의 타락으로 인한 現代의 不毛地를 구하기 위해서, 現代人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죽음은 희생으로서의 죽음이요, 다시 生命으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다. 精神的인 暗黑과 죽음의 時間 그리고 場所속에서 엘리엇은 빛의 暗示를 받고 그는 그 方向으로 움직인다. 그 빛은 “The word within a word”이며, “새해에”(Gerontion) “삼켜버릴듯이”(Gerontion) 달려드는 “호랑이로서의 그리스도”(Gerontion)의 存在다.

우유부단한 自我, 慾情속에서 눈 먼 自我,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된 自我, —이 모든 自己中心的인 自我가 빚어낸 모든 절망의 時間으로부터의 脫出은 스스로 그 유폐된 自我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거나, “호랑이같은 그리스도”에게 잡혀먹히거나 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再生의 象徴이 “Gerontion”에서 暗示되어 聖灰水曜日(Ash Wednesday)에 이르면

Lady, three white leopards sat under a juniper-tree

註 ㉞ The Waste Land.

㉟ Gerontion.

㊱ Ibid.

㊲ Peter Milward, Ibid., “For birth into the new life of Christian faith demands a spiritual renunciation and deprivation that seems like death.” p. 184.

In the cool of the day, having fed to satiety
 On my legs my heart my liver and that which had been contained
 In the hollow round of my skull.^㉔

으로 發展된다. 그리하여 暗黑에 싸여진 “The word”(Gerontion)는 Ash Wednesday에 이르러

The Word without a word, the Word within
 The world and for the world;
 And the light shone in darkness and
 Against the World the unstilled world still whirled
 About the centre of the silent Word.^㉕

“世界속의, 세계를 위한” 것이 되어 “暗黑을 비추는 불빛”이 되지만 “the centre of the silent Word” 주위를 “the unstilled world”가 아직도 變轉하고(whirl) 있다. “Gerontion”에 있어서 De Bailhache, Fresca, Mrs. Cammel 등이 “whirled/Beyond the circuit of the shuddering Bear/In fractured atoms”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whirl”로 表現되는 “Eliot’s sense of the swirling mobility of human existence”^㉖는 Burnt Norton 에 있어서의 “Distracted from distraction by distraction..., whirled by the cold wind/That blows before and after time”에서 볼 수 있는 “whirl”과 함께 變轉하는 地上의 生活을 나타낸다고 보면 “turning world”와 “still point”의 關係는 아직도 詩人 엘리엇의 自我를 괴롭히면서 그를 변모시키는 要因으로 남아 있다. 이것은 East Coker의 첫대목인 “나의 始作에 나의 끝이 있다.”(In my beginning is my end)에서 發見되는 죽음의 苦痛으로서의 “turning world”와 새로운 生命의 탄생으로서의 “still point”로 해석되어 나의 始作에 變轉하는 世界가 暗黑의 場所와 時間으로 存在했고, 나의 “끝”에 宗教로 구제되는 “靜止點” 即 絕對의 世界가 빛으로 存在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㉗

그러나 重要한 문제는 이같은 救濟의 길이 自我의 變革으로만이 온다는 엘리엇의 確信이다.

註 ㉔ Ash Wednesday (II)

㉕ Ibid. (V)

㉖ J. Hills Miller, Ibid., p. 147.

㉗ Peter Milward는 그의 “The Theme of Death in Eliot’s Poetry” 속에서 ‘a beginning and end’의 문제를 나의 見解와 비슷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이 두 극단사이의 旅路의 과정으로서의 Ash Wednesday의 意味를 自我의 內的 변모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點, 나는 Elizabeth Schneider의 “Ash Wednesday and the Ariel poems come to explore the inner reality of a changed and changing self.”라는 意見에 同調한다. Peter Milward는 the Journey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is new Journey is for himself at once a ‘deeper communion’ with the Word incarnate in Christ and a communication of what he has already discovered to others. As before, the journey involves two terms, a beginning and end, and in between them ‘the agony of death and birth’; but now he knows his destination, even if its full nature is hidden from him in a ‘cloud of unknowing,’ and he can travel in peace and assuredness of eventual discovery.” p. 189.

이런 自我의 變革은 外部에서 주어지는 結果가 아니고 自我의 意志의 所産이라는 것이 우리가 注目해야하는 點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Gerontion”에서 그 빛의 暗示가 주어지고, “The Waste Land”에서 不毛地를 구할 수 있는 方案이 수립된 다음에 追求해야 될 點은 “始作과 끝” 사이에 展開되는 變모과정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變모과정은 自我의 意志가 宗教的 確信으로 비약되는 內的과정에서만 可能하다. 이같은 內的인 變모의 表現은 詩의 形式을 多分히 告白的인 것으로 만들기 쉽다. Ash Wednesday가 그러하고 Four Quartets가 그러하다는 것은 이런 理由에서 나의 主張을 견고히 해 주고 있다. ㉞

IV

Ash Wednesday는 Part III가 1927年, Part I이 1928年 그리고 Part II이 1929년에 發表되었고 全篇은 1930年 봄에 發表되었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Lent의 시작을 이 詩의 時期로 잡고 있다. 聖灰水曜日의 儀式에서 司祭는 재(灰)에다 엄지손가락을 담그고 十字를 그으면서 Genesis의 句節 “인간이여, 기억하라, 그대는 재(灰)이니라, 따라서 다시 재(灰)로 돌아갈 것이다.”를 읊조린다는 것이다. 이는 人間의 原罪意識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으로 George Williamson이 主張한대로 ㉞ “人間이 世俗으로 부터 脫皮하여 神에게로 歸依해야 될 必要性”을 강조하는 일인 것이다. Grover Smith는 이 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㉞

“Like earlier poems it predicates a conflict between the values of flesh and spirit, the one objectified as sensuous memories of a buried life, the other as a state of striving toward the grace of union with the Word.”

“肉體와 精神의 價値사이의 갈등”을 表現하고 있는 것은 初期詩의 특징 그대로이며, “the Word”로 向하는 執念을 다루고 있다는 그의 해석은 매우 옳은 판단이다.

F. O. Matthiessen은 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言及하고 있다. ㉞

“He(Eliot) wants to embody the reflection that although he desires to focus his mind upon God, although his spirit, in its ascent of the purgatorial mount, does not want to be distracted any longer by sensuous beauty, still, it is impossible to divorce the reflection from the imagery. Exact description of memories of the varied loveliness of the New

註 ㉞ Frank Kermode “A Babylonish Dialect,” T.S. Eliot: The Man and His Work, p. 243. “The Four Quartets seem by comparison isolated in their eminence, tragic, often crystalline in the presentation of the temporal agony, but personal; and closer sometimes to commentary than to the thing itself.”

㉞ George Williamson. A Reader's Guide to T.S. Eliot.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57. p. 168.

㉞ Grover Smith. T.S. Eliot's Poetry and Plays. Phoenix Book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135.

㉞ F.O. Matthiessen. The Achievement of T.S. Eliot,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p. 63~64.

England coast expresses the very sensation of his distraction, of his turning, in spite of his will, away from the contemplation of God. He is momentarily forgetful of the penance of humility appointed for Ash Wednesday; for he has been lured back to the human realm of desire and loss by the enchantment of the senses”

이 引用文에서 注目할만한 것은 神에의 갈망과 感覺的인 地上的 美에의 關心이 아직도 갈등하는 상태로 Ash Wednesday 에서 表現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Ash Wednesday 以前の 初期詩에서도 이 “갈등”은 그 특징처럼 나타나 있다고 나는 말한 바 있는데, 初期詩에서의 “갈등”은 行動下의 주저(hesitation)가 따르는 것으로 좌절과 敗北의 쓰라린 體驗이었다면, Ash Wednesday 에서 表現된 “갈등”은 方向이 設定된 이후에 그 方向으로 가고 있는 途上에서 겪는 試鍊으로서의 體驗인 것이다. 初期詩에 쓰여지고 있는 “stairs”의 이미지와 Ash Wednesday 의 “stairs”를 比較考察해 보면 이 차이는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Leonard Unger 는 엘리엇의 詩作品속에 쓰여지고 있는 images 를 分析해 본 結論으로서 이 미지의 使用이 事物에 대한 어떤 각성(인식)의 수단임을 밝혔다.^㉟ 그가 지적한 것에 依하면 “stairs”의 이미지가 the Prufrock group 에서 다섯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다.^㊱

I mount the stairs and turn the handle of the door

“Portrait of a Lady”

Time to turn back and descend the stair,

“Prufrock”

I mount the steps and ring the bell,

“The Boston Evening Transcript”

Stand on the highest pavement of the stair—

“La Figlia che Piange”

You have the key,

The little lamp spreads a ring on the stair.

Mount.

“Rhapsody on a Windy Night”

Leonard Unger 의 說明을 들어보면, “stairs”의 이미지가 使用되고 있는 곳에는 언제나 “stairs”에 관련된 행동이나 또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한 人間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註 ㉟ Leonard Unger. “T.S. Eliot's Images of Awareness,” T.S. Eliot—The Man and His Work, Edited by Allen Tate, A Delta Book, New York, N.Y. 1966, p. 203.

㊱ Ibid., p. 205.

“stairs”는 到着과 出發의 場所 口實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Rhapsody”의 경우를 除外하고 위에서 引用된 경우에는 모두 男女간의 如意치 못한 關係가 그 상황으로 提示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stairs”는 詩속에 登場하는 人物 또는 the speaker의 “a posture of awareness”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posture는 “an actual posture”라기보담은 “a quality of awareness”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stairs”는 모두 literal한 意味가 強하고 symbolic한 意味는 약간 있기는 하지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L. Unger의 主張이다.

그밖에도 엘리엇의 다른 詩(“Burbank with a Baedeker: Bleistein with a Cigar”, “The Waste Land”, “Sweeney Agonistes”, “Murder in the Cathedral”, “The Cocktail Party”, “A Song for Simeon”, “Ash Wednesday”, “Burnt Norton”)에서 “stairs”가 이미지로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stairs”는 詩의 主題와 깊은 聯關性을 지니고 있는 symbolic한 것임을 Unger는 밝히고 있다. 특히 “A Song for Simeon”, “Burnt Norton”에서 使用되고 있는 “stairs”는 (“saints’ stair” in “A Song for Simeon”, “the figure of the ten stairs” in “Burnt Norton”) images로 보담은 symbols이라고 하기가 더 効果的이다.

Ash Wednesday에 이르면 엘리엇의 初期詩와 後期詩의 모든 “stairs”의 이미지가 이 詩作品속에서 綜合되어, 具體化되고, symbolic해져서 “metaphysical conceit”의 영역에 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Unger는 主張하고 있다. “初期詩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층계를 오르는 사람은 詩의 Speaker이다.”⁴¹라고 Unger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詩의 主題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點에서 자못 注目할만 하다. Unger는 말하고 있다. 「“stops and steps”와 連關시켜 “mind”를 記述하고 있는 것은 이 詩에서 가장 鮮명한 이미지를 이루는 것으로서 이 詩의 모든 行動과 상황이 그것으로서 압축되고 深化되고 있다.」⁴²

初期詩에서 볼 수 있는 “stairs”의 이미지는 주로 “주지”의 뜻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Ash Wednesday의 “stairs”는 정신적 투쟁의 象徴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Ash Wednesday에 있어서 정신적 투쟁의 主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部分이 part III인데, 이 Part III는 最初에 Som de l’Escalina (the summit of the stairway)라는 표제를 달고 있어서, Grover Smith가 연구한 바로는 Dante의 Purgatorio IX의 세계단과 St. John of the Cross의 神秘로운 사닥다리(The Dark Night of the Soul의)와 비등한 것이라 한다. 여하튼 Ash Wednesday Part III의 “stairs”는 再生으로 向하는 이 詩의 主題를 表現하는데 적절하다. George Williamson이 지적한대로 “오른다(ascent)는 것은 Ash Wednesday에 있어서

註 41 Ibid., p. 213.

42 Ibid., p. 213.

43 George Williamson, Ibid., p. 176.

보다 높은 사랑을 實現하기 위한 方式”⁴⁴이기 때문이다.

At the first turning of the second stair
I turned and saw below
The same shape twisted on the banister
Under the vapour in the fetid air
Struggling with the devil of the stairs who wears
The deceitful face of hope and of despair.⁴⁵

希望과 絶望이 교차되는 회의(doubt) 속에서 악마와 싸우듯 “stair”를 오르는 그 苦闘가 역역히 나타나 있다. 오르면서 그는 罪의 점질을 벗고 있다. 셋째번 “stair”에서 그는 世俗的인 官能美의 유혹을 느낀다.

At the first turning of the third stair
Was a slotted window bellied like the fig's fruit
And beyond the hawthorn blossom and pasture scene
The broadbacked figure drest in blue and green
Enchanted the maytime with on antique flute.
Blown hair is sweet, brown hair over the mouth blown,
Lilac and brown hair;
Distraction, music of the flute, stops and steps of the mind over the third stair,
Fading, fading; strength beyond hope and despair
Climbing the third stair.⁴⁶

그것은 試練이다. “봄과 젊음 그리고 肉體的 사랑의 暗示”⁴⁷는 기껏해야 좁은 창문의 視野에 비친 아득한 거리에서의 光景이어서 直接的으로 壓倒해오는 호소력은 없다. 意志의 힘으로 (“strength beyond hope and desoair”) 그는 이 유혹을 克服하다. (“climbing the third stair”)

Lord, I am not worthy
Lord, I am not worthy
but speak the word only⁴⁸

Ash Wednesday의 Part I 과 II에서 볼 수 있는 자세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열렬히 청하고 있다.

Ash Wednesday의 Part I에서 the speaker는 그 자세가 否定的이고 체념적이다. 아무런

註 44 Ash Wednesday (III)

45 Ibid., (III)

46 George Williamson, Ibid., p. 176.

47 Ash Wednesday (III)

希望도 없기 때문에 行動의 方向도 있을 수 없다. Part II에서는 忘却과 高요가 전면에 넘치고 있어서 투쟁과 노력을 느낄 수 없다. (“Forgetting themselves and each other; united/In the quiet of the desert.”) Part IV는 다시 Part II의 “the desert-and-garden”의 imagery로 돌아가지만 轉換의 움직임이 있다. “Who”가 “the years”가 되고, 마침내 “the new years”가 되는 變化가 생긴 것이다. 官能의인 유혹도 이미 느끼지 않는다. (...behind the garden god,/ Whose flute is breathless...) 사막은 樂園이 된다. (But the fountain sprang up and the bird sang down...) 허지만 아직도 “the word”는 들리지도 않고, 말하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The token of the word unheard, unspoken”) 영혼은 아직도 流配된 상태이다. (“And after this our exile”) “the word”는 이 詩속에서 Christ의 眞實이기 때문에 (“the blessed face” “the voice”) the speaker의 信仰은 흔들리고 있다. 그 信仰을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念願은 Part IV 속에서 “made strong the fountains and made fresh the springs” 또는 “made cool the dry rock and made firm the sand”에 잘 나타나 있다. Part I에서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again”이 “Because I cannot hope to turn again”으로 變化되고, 다시 마지막의 Part V에 이르면 “Although I do not hope to turn again”으로 진전된다.

Wavering between the profit and the loss
 In this brief transit where the dream cross
 The dream crossed twilight between birth and dying
 (Bless me father) though I do not wish to wish these things
 From the wide window towards the granite shore
 The white sails still fly seaward, seaward flying
 Unbroken wings^④

“to turn”은 Elisabeth Schneider도 옳게 풀이했듯이 “wish to turn back to the old life”^④라고 할 때, 잠시 꿈이 엮어 놓는 生과 死의 恍惚지대인 感覺의 기쁨의 영역에서 머물고 싶지도 않고 (“do not hope”) 머무를 수도 없는 (“cannot hope) 自我의 決斷을 告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he speaker는 salvation 一步前에서 흔들리고 있다. (“Wavering”) 이 흔들림은 初期詩에서 볼 수 있는 방관자의 hesitation이 아니라, 求道者의 苦惱——即 肉體의 自我로부터 宗教의 自我로의 轉換點에서 느끼는 동요인 것이다. 그를 유혹하는 地上의 光景을 이미 그는 좁은 창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창문(“the wide window”)을 통해서 보고 있다. 그곳에서 보이는 것은 變轉하는 俗世의 情景이다. (“The cry of quail and the whirling plover”) “the whirling plover”의 이미지는 “The cry of quail”과 함께 現世가 “The dream-

註 ④ Ibid., (VI)

④ Elizabeth Schneider, Ibid., p. 1112.

crossed twilight between birth and dying”임을 鮮明히 해 주고 있고, 그 現世의 時間이 “죽음과 탄생사이의 緊張의 한때”(“This is the time of tension between dying and birth”)임을 明白히 해주고 있다. 이 時間과 場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Do I dare

Disturb the universe?

In a minute there is time

For decisions and revisions which a minute will reverse.⁵⁰

“Prufrock”처럼 마냥 주저하는 人間들은 “盲目이 空虛한 형태를 만드는”(“And the blind eye creates/The empty forms between the ivory gates”) 일과 같다. 넓은 창문은 決局 그곳을 통해서 信仰의 빛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뚫고 볼 수 있는 모든 매혹적인 事物들은 이미 그의 信仰의 길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잃은 것(“lost”)으로서 그의 영혼을 支配하고, 그의 肉體가 所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nd the **lost** heart stiffens and rejoices

In the **lost** lilac and the **lost** sea voices

And the weak spirit quickens to rebel

For the bent golden-rod and the **lost** sea smell

Quickens to recover

The cry of quail and the whirling plover⁵¹

(Bold 體 筆者)

잃은 것이기 때문에 期待하고, 希求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宗教的 淨福의 生으로 가기 위해 그는 “시든 사과 씨앗을 입으로 부터 배알아”(“spitting from the mouth the withered apple-seed”) 내는 肉體와 精神의 淨化를 準備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祈願뿐이다.

And let my cry come unto Thee.⁵²

“나의 울부짓음이 主님께 이르소서”라는 기도文이 갖는 迫眞感은 그것이 變轉하는 現世의 소용돌이를 겪고, 그 속에서 人間이 自我의 變革을 꾀하고, 스스로 苦闘하며 “主님의 뜻”(“His will”)을 模索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初期詩들이 turning world의 局面의 表現이라면, Ash Wednesday는 神에의 模索過程의 表現이라 볼 수 있고, Four Quartets는 現在속에서의 새로운 自我의 探索과 그 完成이라고 볼 수

註 50 The Love Song of J.A.P.

51 Ash Wednesday (VI)

52 Ibid., (VI)

있다. 엘리엇은 自我의 단계적 변모의 必然성과 可能性을 그의 詩속에서 發見되는 人間意識의 發展過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⁵³

V

Helen Gardner 는 그의 Four Quartets 論속에서⁵⁴ Burnt Norton 은 空氣에 關한 詩요, East Coker 는 地에 關한 詩며, The Dry Salvages 는 水에 關한 詩이며, Little Gidding 은 火에 關한 詩여서, 이 四元素가 結合되어 生命을 구성하는 일을 Four Quartets 가 內容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이 詩속에서 第5의 要素가 있다면 “眞正한 人生의 原理”가 바로 그것이어서, 이것이 “全體詩의 主題”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Four Quartets 가 “時間속에서의 存在에 대한 一連의 명상을 보여주고 있다”⁵⁵고 했으며, 그 存在가 어떤 時間과 어떤 場所속에서 겪게 되는 “經驗의 意味와 內容”을 이 詩는 解明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elen Gardner 의 이런 見解는 Four Quartets 를 接할 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어서 別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重要的 것은 이 詩가 “詩人으로서의 個人的인 문제를 엘리엇이 個人的으로 解決했다”는 Helen Gardner 의 主張이다. Helen Gardner 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長詩의 문제”에서 생기는 形式과 主題의 關係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Four Quartets 의 副題가 “the growth of a poet's mind”일 수 있다는 그의 主張은 Tennyson 의 In Memoriam 의 경우에서 처럼 “a spiritual diary”로서의 特色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The bearing of the Quartets on Eliot's personal career and belief is sufficiently evident from their content,”⁵⁶라는 Grover Smith 의 見解와도 一致한다.

Elizabeth Drew 는 엘리엇이 이 詩作品속에서 “the new centre of being attained by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which results in the integration of the personality,”⁵⁷에 關한 생각

註 53 Elizabeth Drew 는 그의 著書 T.S. Eliot—the Design of His Poetry (1954)에서 探索의 과정으로서의 詩의 문제를 Four Quartets 와 관련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e full illumination of the Christian concept is not the starting point but what is arrived at. The poems are a process of exploration, both along the movements of time, and inward into the stillness of ‘consciousness.’”

54 Helen Gardner. The Art of T.S. Eliot.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1969. pp. 44~45. “and another way of describing Four Quartets and a less misleading one, would be to say that Burnt Norton is a poem about air, on which whispers are borne, intangible itself, but the medium of communication; East Coker is a poem about earth, the dust of which we are made and into which we shall return; it tells of ‘dung and death,’ and the sickness of the flesh; the Dry Salvages is a poem about water, which some Greek thinkers thought was the primitive material out of which the world arose, and which man has always thought of as surrounding and embracing the land, limiting the land and encroaching on it, itself illimitable; Little Gidding is a poem about fire, the purest of the elements, by which some have thought the world would end, fire which consumes and purifies.”

55 Helen Gardner. Ibid., p. 44.

56 Grover Smith. T.S. Eliot's Poetry and Plays. Phoenix Book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5. p. 255.

57 Elizabeth Drew. T.S. Eliot. The Design of His Poetry, London, Eyre & Spottiswoode, 1954. p. 173.

을 나타내고자 努力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곧 自我의 發展過程⁵⁹으로서의 主題를 力說하고 있는 것으로서 엘리엇의 初期詩에서 부터 시작되는 Personality의 探求가 發展의 形態를 띄우며 Four Quartets에 이르고 있다는 나의 主張을 뒷받침 해 준다. Elizabeth Drew는 “the turning world”가 兩面이 있어서 “two spheres of existence”로서 두개의 共存하는 turning worlds가 있다고 主張⁶⁰하지만, 나의 생각은 ‘turning world’에서 ‘the still point’로의 志向이 있으므로해서 Personality의 계속적인 成長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the growth of a poet’s mind”가 따라서 重要한 關心事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Elizabeth Drew는 “모든 길이 中心의 生命”으로 引導되며 “still point”가 時間과 영원, 靜止와 運動의 交叉點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⁶¹ Ash Wednesday에서 이미 우리가 보아온대로, 그것은 詩練과 苦悶다음에 오는 기다림이지, “生命의 中心”에 대한 認識만으로서는 不可能한 일인 것이다. 靜止와 動作이 一致되는 經驗은 오로지 가열한 動作이 있을 때 뿐이다. 엘리엇의 初期作에서 지적되는 消極的인 動作, 우유부단한 存在樣式은 Four Quartets속에서 엘리엇이 성취하고자하는 創造的 生活의 背景과 舞台였다.

Burnt Norton속에서 ‘the still point’와 ‘the turning world’와의 關係가 이렇게 表現되고 있다.

At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 Neither flesh nor fleshless;
Neither from nor towards; at the still point, there the dance is,
But neither arrest nor movement. And do not call it fixity,
Where past and future are gathered. Neither movement from nor towards,
Neither ascent nor decline. Except for the point, the still point,
There would be no dance, and there is only the dance.

F. R. Leavis는 엘리엇은 Burnt Norton속에서 ‘영원의 概念’을 재창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한다.⁶² Maxwell도⁶³ 같은 意見を 이렇게 말하고 있다. “The still point evidently suggests the stillness of eternity, and contrasts with the fevered movement of the temporal.

註 58 Drew는 Jung을 引用하면서 “the sense of wholeness of personality, the Self in place of the Ego”라고 말한다.

59 Elizabeth Drew. Ibid., 7 pp. 180~181 “But the image of the turning world is two-fold: there are two co-existent turning worlds, two ‘spheres, of existence, One is the physical, external world of spatio-temporal manifestations; the world of perpetual change. The other is the unseen world of inner unchanging pattern, whose centre is ‘the still point.’ Man is ‘involved’ with both and is part of the pattern of both. The themes of the poems are the revelation of this of this double relationship—to the world of nature and to the world of spirit—and of the results of the lack of relationship.”

60 Elizabeth Drew. Ibid., p. 182.

61 F. R. Leavis. “T. S. Eliot’s Later Poetry.” in T. S. Eliot edited by Hugh Kenner, Prentice-Hall, 1962. p. 119.

62 D. E. S. Maxwell. The Poetry of T. S. Eliot. Routledge & Kegan Paul, Broadway House, London, 1966. p. 156.

The radiance of the white light that is associated with the stillness opposes the spiritual darkness of the world.” 變轉하는 世界(the turning world)의 暗黑과 영원한 빛의 世界인 宗教的 眞理(the still point)가 對照的으로 表現되고 있다. 動作(dance)의 절정으로서의 靜止의 逆說的 表現은 “어둠이 빛이 되며, 靜止가 춤이 되는”(“So the darkness shall be the light, and the stillness the dancing.”) 逆說的 表現과 함께, 그리고 되풀이 되는 句節 “나의 시작속에 나의 끝이 있다”(“In my beginning is my end”)의 主張속에서 宗教的 絕對性을 나타낸다. 宗教的 절대성의 位置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追求’의 이미지가 使用된다. Ash Wednesday 에서 ‘stairs’의 이미지가 쓰이는 경우와도 같다. “Shall we follow?/Quick, said the bird, find them, find them,/Round the corner. Through the first gate,/Into our first world, shall we follow/ The deception of the thrush? Into our first world.” (Bold體 筆者)

짧은 部分은 빛을 찾아 쫓아가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보이지 않은’(invisible) 그 빛이지만 空氣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存在이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다. (‘unheard music’, ‘unseen eyebeam’) 그러나 分明히 그것은 볼 수 있는 것이다. (‘Had the look of flowers that are looked at’) 이처럼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은 것의 거리를 메꿀 수 있는 것은 끊임 없는 ‘추적’뿐이다.

“Go, said the bird, for the leaves were full of children,/Hidden excitedly, containing laughter./Go, go, go, said the bird: human kind/Cannot bear very much reality./” (Bold體 筆者) “人間은 現實을 참지 못하는” 허약성이 原罪意識으로서 남아 있지만, 完全해지기 위해서 努力해야 한다는 것을 엘리엇은 命令文 “Go…”로서 촉구하고 있다. 그 ‘追求’는 ‘a place of disaffection’에서, ‘in a dim light’속에서 발버둥 치면서도 官能의 世界에서 벗어나서 (“Emptying the sensual with deprivation”) ‘精神을 淨化시키는 일’ (“to purify the soul”)이며 現世的인 慾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cleansing affection from the temporal”) D. E. S. Maxwell이 Four Quartets가 ‘the transformation of human into divine love’⁶⁾의 主題를 다루고 있다고 했을 때, ‘human love’의 世界로 ‘썩은 肺臟’(‘unwholesome lungs’)과 ‘病든 영혼’(‘unhealthy souls’)이 ‘퇴색한 空氣’(‘the faded air’)속에서 바람에 쫓기며 사는 음산한 London, Hampstead, Clerkenwell, Camden, Putney, Highgate, Primrose 그리고 Ludgate 라는 具體的인 歷史속의 場所이다. 그 世界는 不安속에 들떠 있는 ‘this twittering world’이다. 이런 世界속에서 ‘빛나는 고요’(‘lucid stillness’)인 궁극적인 頂點—神의 中心으로 向하는 追求가 간단없는 命令으로 하달된다.

Words move, music moves

註 6) D. E. S. Maxwell. Ibid., p. 179.

Only in time; but that which is only living
 Can only die. Words, after speech, reach
 Into the silence. Only by the form, the pattern,
 Can words or music reach
 The stillness, as a Chinese jar still
 Moves perpetually in its stillness⁶⁴

Ash Wednesday 에서 끈질기게 追求된 'Words' 는 '時間속에서만 움직인다.' 即 歷史속에서 살아 있는 動作으로 움직이는 法이다. 그 'words' 가 'speech' 로서, 또는 'the form' 과 'the pattern' 을 얻어 表現된 다음에 'the stillness' 에 到達된다는 것이다. 'words' 는 歷史속에 살아 있는 現實이 되고 生命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깨지고' ('crack') '멸망하고' ('perish') 또는 '場所를 얻지 못하여' ('will not stay in place') 定着하지 못하고 부패 ('decay') 할 수도 있을 것이다.

Shrieking voices
 Scolding, mocking, or merely chattering,
 Always assail them.⁶⁵

위의 詩句에서 볼 수 있듯이 'words' 는 위협을 받고 '유혹의 공격을 받으며' ("The word in the desert/Is most attacked by voices of temptation,") '장송행렬 속의 울부짖는 그림자가 되어' ("The crying shadow in the funeral dance,") 크게 슬픔에 잠길 수도 ('The loud lament') 있을 것이다.

The detail of the pattern is movement,
 As in the figure of the ten stairs.

그러나 그 패턴이 움직여 나가는 것 속에 있기 때문에, St. John of the Cross 가 神과의 結合을 위하여 救濟의 길로 이르는 영혼의 進展을 'stairs' 로 表現했듯이, '햇살이 돌연히 비치는' ("Sudden in a shaft of sunlight") 곳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것은 멈출 수 없다.

Burnt Norton 에서 'Go' 의 이미지는 East Coker 에 이르러서는 'arrive' 의 이미지로 必然的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宗教의 구원의 성취로 '到達' 하기 위한 追求이기 때문이다.

Shall I say it again? In order to **arrive** these,
 To **arrive** where you are, to get from where you are not,
 You must **go** by a way where in there is no ecstasy.
 In order to **arrive** at what you do not know

註 64 Burnt Norton (V)

65 Ibid., (V)

You must **go** by a way which is the way of ignorance
 In order to possess what you do not possess
 You must **go** by the way of dispossession.
 In order to **arrive** at what you are not
 You must **go** through the way in which you are not.

(Bold 體 筆者)⁶⁶

目標('arrive')와 方法('go')이 分明히 言及되고 있다. 眞正한 自我(the self)의 發見이 ego의 脫皮로부터 이룩된다는 것을 거듭 主張하고 있다. ego에 사로잡힌 生活은 '슬프게 낭비된 時間'('the waste sad time' Burnt Norton)이어서 詩人 엘리엇으로 볼 때, (East Coker V) 20年間을 'trying to learn to use words' 하면서 '두 大戰사이에서' 낭비한 세월로서 그는 '人生의 中途'('in the middle way')에 다달은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오로지 人間에게는 努力만이 있을 따름이고("there is only the trying") 나머지 일은 人間の 能力을 초월하는 일로서("The rest is not our business.")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리는 일은 宗教的 體驗의 世界인 것이다.

We must be still and still moving
 Into another intensity
 For a further union, a deeper communion
 Through the dark cold and the empty desolation,⁶⁷

East Coker에서 追求되는 "the still point"는 The Dry Salvages에 이르러 Annunciation과 Incarnation이라는 기독교적인 어휘가 사용될만큼 深化되어 宗教的 平和, 영원불멸, 희생, 그리고 再生의 主題로 發展된다. 過去의 苦惱가, 現在의 희생으로 淨化되어, 未來속에서의 生命의 탄생으로 승화된다. The Dry Salvages에서 우리는 'the truth of the Christian experience that God is Love'⁶⁸가 밝혀지는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엘리엇의 詩世界는 점차로 初期詩의 그 공포와 저주의 절망으로부터 榮光의 빛을 띄우는데, 이 變化는 verse drama를 쓰고자 하는 style의 變化에서도 엿볼 수 있고, 이 style의 變化는 곧 그의 詩人으로서의 態度의 變化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河川과 바다의 symbols는 人間の 時間과 自然의 時間을 意味한다. The Waste Land의 住民들이 한때 망각했던 'a strong brown god'인 것이다. 허나 지금은 '人間이 잊고자 했던 것'('What men choose to forget')을 깨버리는 '파괴자'('destroyer')가 되면서 '기다리며, 주시하

註 ⁶⁶ East Coker (III)

⁶⁷ Ibid., (V)

⁶⁸ Helen Gardner; Ibid., p. 67.

며 그리고 기다리는' ('but waiting, watching and waiting') 우리들 內部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The river is within us, the sea is all about us;') 時間이다. 바다는 많은 神들의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The sea has many voices,/Many gods and many voices.") 바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듯이 그 神의 목소리는 우리를 휩싸고 있다. 그 소리는 '여러 소리와 함께 들리기' ('different voices/Often together heard') 때문에 때로는 위협적인 때로는 쓰다듬는 파도('The menace and caress of wave')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고, 신음소리일 수도 있으며, 警告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을 알리는 吊鐘일 수도 있다. 이것은 神과 自然의 時間이 울리는 소리이며, 그 소리를 듣는 人間의 時間은, 과거가 온통 속임수이고 未來는 없는 것일 때'가 된다. ('when the past is all deception,/The future futureless') 그 人間의 時間은 '멈추고, 끝이 없는' ('When time stops and time is never ending;') 時間이다. 그 時間은 人間이 難破하여 표류하는 時間이다. ('Where is there an end to the drifting wreckage,') 이때 엘리엇은 Annunciation 과 Renunciation 의 宗教的 어휘를 導入한다. 마지막 죽음의 宣告 앞에서 世俗的인 모든 慾望을 포기하는 者만이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慾望을 人間들은 幸福이라고 부른다.

即 'the sense of well-being,/Fruition, fulfilment, security or affection,/Or even a very good dinner'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 經驗의 意味를 놓칠 수도 있다. 그 結果로 人間은 '突然한 啓示' ('the sudden illumination')를 놓치게 된다. 人間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記錄된 歷史의 保證 뒷쪽을 反省해서 되려다 보는 일이다.' ('The backward look behind the assurance/Of recorded history,') 이때 망각의 '파괴자로서의 時間은 保存者로서의 時間'이 된다. ('Time the destroyer is time the preserver,') 그 時間은 現在와 永遠이 교차하는 時間이며 사랑속에서 한평생 죽는 일이며, 無私속에서 自我를 포기하는 時間이다.

But to apprehend

The point of intersection of the timeless

With time, is an occupation for the saint—

No occupation either, but something given

And taken, in lifetime's death in love,

Ardour and selflessness and self-surrender.⁹

이런 時間은 '時間속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순간이며' 그 音樂의 感動이 너무 深遠해서 전혀 그 音樂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다. 그 것은 '音樂이 지속되는 동안의 音樂' 그 自體가 되는 순간이다. 이런 순간의 高요(The stillness)를 向하여 'seamen' 처럼 'voyagers' 처럼 '앞으로 前進' ('fare forward') 하는 일이 眞正한 目的이 된다. ('this is your real destination')

註 9 The Dry Salvages (V)

그 밖에 할 일은 오로지 기도뿐이다. ('and the rest/Is prayer,') 이때 人間은 過去와 未來를 現在 속에서 克服할 수 있고 生命의 中心(the still point)과 運動이 一致될 수 있다.

"The Dry Salvages, similarly, is what our capacity for orderly generalization from experience can give us, not the continual apprehension of the still point but an account of how our experience would be related to such an apprehension if we could have it. To repose in such an account is to be free from irrelevant desires;"⁷⁰

Hugh Kenner의 말대로 '우리들의 經驗과 the still point'와의 關係가 重要な 까닭은 常識的이며 日常的인 人間生活의 타성의 消滅이 기도속에서 可能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Little Gidding은 Grover Smith가 말한대로⁷¹ "The Dry Salvages가 끝난 대목에서 부터 연속되어 시작된다." 따라서 The Dry Salvages의 季節은 곧 Little Gidding의 'the summer, the unimaginable/Zero summer'가 되어 '神과의 結合속에서만 알 수 있는 季節'⁷²로서 묘사된다.

Little Gidding은 Nicholas Ferrar에 依해 창설된 'Anglican religious community'의 場所로서 많은 聖者가 연상되는 場所의 이름이다. 그곳은 기도의 場所다. 모든 知識, 感覺, 想念을 버리고

You are here to kneel

Where prayer has been valid. And prayer is more

Than an order of words, the conscious occupation

Of the praying mind or the sound of the voice praying.⁷³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이다. 詩人 T. S. Eliot로 볼 때 이 場所는 그가 英國으로 돌아간 場所 即 英國教會이다. 그리하여 戰爭으로 폭격받은 London이다. 空氣가 죽고, 땅이 죽고, 물과 불이 죽는 現代의 英國이다.

History is now and England.⁷⁴

時間과 場所가 分明히 言及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時間과 이 場所가 기도로써 克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Preludes의 그 타락한 거리와 The Waste Land의 그 죽음의 거리는 實로 엘리엇이 숨쉬고 있었던 具體的인 場所였다.

Here, the intersection of the timeless moment

Is England and nowhere. Never and always.⁷⁵

註 70 Hugh Kenner. The Invisible Poet: T. S. Eliot. The Citadel Press, New York, 1964, p. 316.

71 Grover Smith. T. S. Eliot's Poetry and Plays. A Study in Sources and Meaning, Phoenix Book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5, p. 286.

72 Grover Smith. Ibid., p. 286.

73 Little Gidding (I)

74 Little Gidding (V)

75 Little Gidding (I)

그는 歷史속에서 구제의 時間을 찾고 있다. London 上空에 나린 폭격의 불과 防火의 물은 '淨火의 불이요, baptism의 물'이기도 하여 '파괴와 再生'을 상징한다. ㉞ 구제받는 길이 '사랑의 引導를 받아' ('with the drawing of this Love,') '召命의 소리를 듣고' ('and the voice of Calling,') 우리가 出發했던 最初의 자리인

the fire and the rose are one^㉞

rose-garden의 樂園으로 到達하고자 探求하는 일속에 있음을 엘리엇은 알고 있다.

We shall not cease from exploration

And the end of all our exploring

Will be to arrive where we started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㉞

VI

1950年 "A Talk on Dante"라는 글에서 T. S. Eliot는 이렇게 말한적이 있다. ㉞

"It is therefore a constant reminder to the poet, of the obligation to explore, to find words for the inarticulate, to capture those feelings which people can hardly even feel, because they have no words for them; and at the same time; a reminder that the explorer beyond the frontiers of ordinary consciousness will be able to return and report to his fellow-citizens, if he has all the time a firm grasp upon the realities with which they are already acquainted."

詩의 任務는 "frontiers of the spirit"를 探索하는 일이며, 이 일은 "a firm grasp upon the realities"를 가질 때 可能한 일임을 말해 주고 있다. 나는 詩人 엘리엇이 냉엄한 知성과 에민한 感性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의 信仰으로서 人間精神의 영역을 깊고, 다양하게, 極限에 이르도록 탐색한 explorer임을 안다. 이 일을 해내는데 있어서 그는 人間現實에 대한 상황파악이 확고했다. 이 現實을 보는 것은 詩人の 눈이다. 그 눈은 詩人の 自我이다. 그 現實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詩人은 그 現實이 주는 樣相과 意味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 現實은 詩人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到達해야 되는 場所를 모색케 한다. 그 모색이 時間과 歷史의 함정에서부터 人間이 구제될 수 있는 비존을 낳는다. T. S. Eliot이 Four Quartets 속에서

註 ㉞ M. C. Bradbrook, T. S. Eliot, British Writers and Their Work: No. 5.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5, p. 28.

㉞ Little Gidding (V)

㉞ Little Gidding (V)

㉞ "A Talk on Dante," Kenyon Review XIV (1952), p. 188. Pei-Pai Lu. T. S. Eliot. The Dialectical Structure of His Theory of Poe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6, p. 134에서 再引用.

Every phrase and every sentence is an end and a beginning,

Every poem an epitaph. (Little Gidding. V)

라고 했을 때, “to find words for the inarticulate, to capture those feelings which people can hardly even feel,”이라는 말의 뜻은 엘리엇 자신이自我를發見하려고 모색한다는 것이다. 엘리엇은自我의發見과 그表現過程에서 변모하게 된다. 그의詩는結局 ‘a record of the spiritual struggles of a man’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詩人の 정신적苦鬪의歷程이救濟의希願으로 끝나는 모습을 T. S. Eliot의 “Four Quartets” 속에서 본다. 바깥世界的觀察과 그觀察에서 오는 당황, 회의, 不安은 점차로 안으로 向하게 하여 Ash Wednesday에 이르러 宗教的 信仰의 세계로의 志向이 檢討되고 Four Quartets에 이르러 詩가 곧 기도로 승화되는 境地에 다다른 것이다. 이詩人の 發展하는 自我는 ‘turning world’의 現實이 추구하는 ‘the still point’에의 志向때문에 이룩된 結果였다.

參考文獻

1. Leavis, F. R. *New Bearings in English Poetry*. London: Penguin Books, 1967.
2. Maritain, Jacques. *Creative Intuition in Art and Poetry*. Meridian Books, New York, 1958.
3. MacLeish, Archibald. *Poetry and Experience*. Penguin Books, 1965.
4. Blackmur, R. P. *Form and Value in Modern Poetry*. Anchor Book Garden City, N. Y. 1957
5. Wilson, Edmund. *Axel's Castle*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31.
6. Shapiro, Karl(Editor) *Prose Keys to Modern Poetry*. Harper & Row, New York, 1962.
7. Smith, Grover T.S. *Eliot's Poetry and Plays*. Phoenix Book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5.
8. Thompson, Eric. *T. S. Elio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Carbondale, 1965.
9. Drew, Elizabeth. *T. S. Eliot—the Design of His Poetry*. Eyre & Spottiswoode, London, 1954.
10. Maxwell, D. E. S. *The Poetry of T. S. Eliot*. Routledge & Kegan Paul, Broadway House, London, 1966.
11. Matthiessen. F. O. *The Achievement of T. S. Elio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8.
12. Kenner, Hugh. (Editor) *T. S. Elio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1962.
13. Tate, Allen (Editor) *T. S. Eliot: The Man and His Work*. A Delta Book, New York, 1966.
14. Lu, Fei-Pai. *T. S. Eliot. The Dialectical Structure of His Theory of Poetry*. The University of Chicago, 1966.
15. Kenner, Hugh. *The Invisible Poet: T. S. Eliot*. The Citadel Press, New York, 1964.
16. Williamson, George. *A Reader's Guide to T. S. Eliot*. The Noonday Press, New York. 1957.
17. Gardner, Helen. *The Art of T. S. Eliot*.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1969.
18. Miller, J. Hillis. *Poets of Realit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5.
19. Masao, Hirai and Tomlin, E. W. F. (Editors) *T. S. Eliot*. Kenkyusha, Tokyo, 1966.
20. Eliot, T. S. *Collected Poems*.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21. Eliot, T.S. *Four Quartets*.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22. Eliot, T. S. *The Sacred Wood*. University Paperbacks. London, 1964.
23. Eliot, T.S. *The Use of Poetry and The Use of Criticism*.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The Still Point” of T. S. Eliot

—On “Four Quartets”—

Lee Tae Ju

Summary

Eliot's early poetry portrays social embarrassments and corrupt personalities so vividly that we are left to feel the agony of despair in that world of gigantic horror. The reader will easily find in his early work “a record of the spiritual struggles of a man of intellectual power and emotional intensity” and will therefore be deeply concerned with the question, “Are those struggles of a man meaningful?”

The theme of death in the darkness of human civilization depicted in the early work of T. S. Eliot developed into the theme of rebirth in his later work. So that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of a man from spiritual death into ultimate survival seems to have attracted the poet's attention from “The Waste Land” on to “Four Quartets.” The change of the tone, substance, and the poet's attitude from the early stage of his poetry to the later one is the primary concern of this thesis.

On the other hand, some change or transformation of T. S. Eliot as a man from an ironic observer to a religious believer is visible in the work of this invisible poet, if surveyed in its entirety.

In pursuing the thematic changes of his poetical work, I could concern myself not only with the inevitability of change itself, but with the process of change. And I tried to clarify the real motivation of his attempt to “transform his wish into will, will into belief and then dedication.”

As a poet, T. S. Eliot was strongly motivated by the desolate aspects of human degradation and was stimulated to observe and explore the “phantoms inhabiting an unreal city.” Out of this effort, he could get the drift of his argument, “Is inner change possible?”

Within the poem,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he carefully unfolded a picture

of the world, in which to think and act is a mere reverie unattainable through the all pervasive hesitations: "There will be time. . . time to turn back. . . Do I dare disturb the universe? . . . And how should I begin?" This is a picture of the world, dominated by ennui and spiritual paralysis, and where man is but an "infinitely suffering thing." We see the world of trivialities turning endlessly and without meaning. I believe this is the world that T. S. Eliot referred to as "the turning world," in which fruitless repetition of human endeavour will lead to the sterile void of blind desires.

By way of the repeated and proper use of the image "stairs," the poet turns his attention from "the agonized split self" to the Christian commitment, which, according to the terms "he ascribed to both Shakespeare and Dante," can only be enacted by establishing one significant and developing personality."

What follows from this commitment reveals the common traits of the later work. Continuous exploration of the question, "Is inner change possible," made it possible for him to proceed to the world of faith and rebirth, overcoming the death and despair of "The Waste Land." The wish to know and propagate "the best that has been known and thought in the world," gave place to the will to change from the despicable ego-centric self to the wholeness of personality in the grace of God.

As for the poet, his official admission into the Anglican Church in 1927 resulted in providing him with the key, with which he could open the world of "Ash Wednesday."

The later poems abound in personal cry, and in "Ash Wednesday" we could listen to the calm and lofty voice of the intimate confession of the poet. All the while, the inner change proceeded in the depth of the poet's mind.

Through the strength of pure will, the "strength of beyond hope and despair," the poet aspires to arrive at the world of stillness, where the sterile land becomes a rosegarden, the degraded soul restores "the assertion of the truth of Christ as the Word," thus bringing the will of his self under the control of Christian belief and impersonal devotion.

In "Four Quartets," the poet, attaining the final vision, meditates further on the exploration of the new self in the frame-work of "Love" and "this Calling" of the Lord.

Finally, the poet could arrive at the place, where "prayer has been valid" and he could repose peacefully after the long spell of the conflict, struggle, effort, and painful tension.

And we know this place is where "the fire and the rose are one"—that is,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